

외국의 성, 에이즈 예방교육



김영란 | 연세대학교 간호대 대학원 졸업
서울 시립청소년 성문화센터 관장 역임
현재 (사) 청소년을 위한 내일여성센터 부설 성교육센터 소장

청소년과 성병/에이즈(제5회)

청소년과 성병/에이즈칼럼은 연재기획으로 5회에 걸쳐 게재됩니다.
향후 연재될 주제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1회 : 청소년의 성병/에이즈감염 위험요인

제2회 : 청소년의 성의식

제3회 : 한국 청소년의 에이즈감염 실태 및 예방

제4회 : 청소년의 성, 에이즈예방교육의 문제점과 실태

1980년대 후반 세계보건기구에서는 전세계 청소년이 당면한 성문제로 청소년의 성경험 시기가 빨라지고 있고 성병의 증가, 피임을 거의 하지 않아 원치 않는 임신이 증가하고 있으며 그로 인해 인공유산의 빈도가 증가하고 있다는 문제를 제기하며 이에 대한 대안마련을 촉구한 바 있다. 이후 각 나라에서는 성문제를 해결하려는 구체적인 노력들이 진행되어왔다.

실제 미국 청소년의 경우 80%이상이 10대에 성경험을 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대부분의 청소년들은 즉흥적으로 성관계를 맺어 콘돔과 같은 도구를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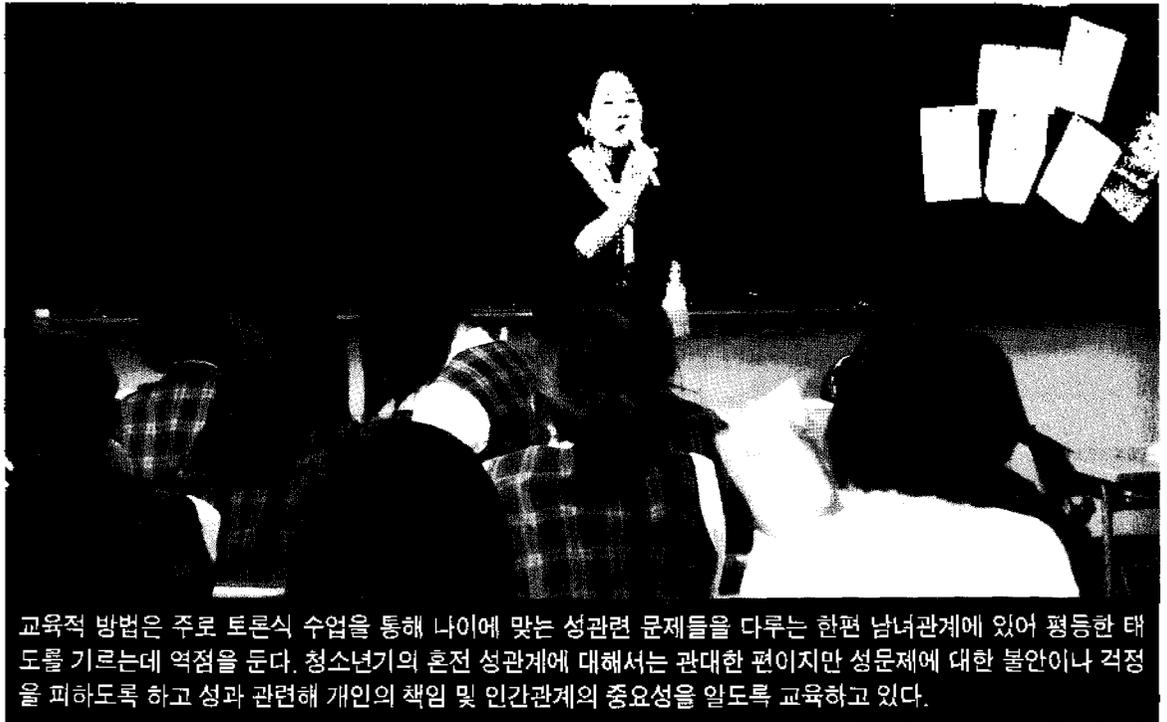
보다 안전한 성행위의 지표는 콘돔사용 정도라는 것이 증명되었고 콘돔이 피임과 성병 및 HIV감염 예방을 위한 효과적인 수단일 뿐 아니라 파트너의 수나 상대 파트너의 타입에 상관없이 성관계를 맺는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로 적용될 수 있는 예방행위인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용이 낮은 것은 각 개인이 맺고 있는 관계망(network)이나 파트너의 태도, 그가 속한 사회의 성 인식에 의해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따라서 안전한 성행위에 대한 인식이나 태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선 보다 적극적인 인식개선을 위한 성교육이 필요하다.

미국이나 영국은 성교육을 위한 가장 강력한 민간단체인 SIECUS(Sexual Information and Education Council in the United States)나 Sex Education Forum 같은 전문적인 성교육 연구단체에서 전반적인 성교육의 내용이나 방향성에 대한 대안들을 제시하고 있다.

미국에서 성인과 학생들을 가진 부모 대상으로 성교육 내용에 대해 조사한 바에 따르면 10명 중 8명 이상이 청소년들에게 원치 않는 임신이나 성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지식과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믿고 있으며 이러한 성교육이 청소년들의 성적 행위를 조장한다고는 믿지 않는다.

즉 에이즈를 비롯한 성병과 임신을 방지하기 위해 미국인의 거의 90%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청소년들에게 실제적인 성교육을 해야 한다고 믿고 있으며 이러한 인식으로부터 1980년대 이후 인간의 성장 발달, 지역사회 건강 등을 골자로 하는 종합보건교육법을 제정해 유치원부터 성교육을 해오고 있다.



교육적 방법은 주로 토론식 수업을 통해 나이에 맞는 성관련 문제들을 다루는 한편 남녀관계에 있어 평등한 태도를 기르는데 역점을 둔다. 청소년기의 혼전 성관계에 대해서는 관대한 편이지만 성문제에 대한 불안이나 걱정을 피하도록 하고 성과 관련해 개인의 책임 및 인간관계의 중요성을 알도록 교육하고 있다.

1992년까지는 45개 주 공립학교가 성교육을 의무화하여 실시하고 있다. 포틀랜드, 오리건, 시애틀, 워싱턴에서는 에이즈 예방 프로그램에 따라 10대들이 잘 모이는 장소에 콘돔자판기를 설치하였으며 특히 이 프로그램을 실시한 직후 성관계시 콘돔 사용률이 증가한 반면 성관계 비율은 감소하는 효과가 나타나기도 하였다.

유럽에서는 생물, 문학, 사회, 종교 등 다양한 교과 속에서 성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결혼과 가정생활에서의 책임감이나 개인의 도덕적 의사결정을 강화하고 성적인 충동을 가치있는 사회생활로 승화시키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다.

교육적 방법은 주로 토론식 수업을 통해 나이에 맞는 성관련 문제들을 다루는 한편 남녀관계에 있어 평등한 태도를 기르는데 역점을 둔다. 청소년기의 혼전 성관계에 대해서는 관대한 편이지만 성문제에 대한 불안이나 걱정을 피하도록 하고 성과 관련해 개인의 책임 및 인간관계의 중요성을 알도록 교육하고 있다.

이러한 개방된 성교육을 한 후 첫 성관계 시기가 3년 정도 늦춰졌다거나 미혼보발생이 현격하게 줄어드는 표

과가 나타나기도 하였다.

이러한 각국의 다양한 성교육 활동은 에이즈뿐만 아니라 성병이나 원치 않는 임신 등 청소년의 성분제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우려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성에 대한 욕구를 인정하고 실제적인 성교육을 통해 건강한 성문화를 만들어 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일들이다.

우리 사회가 서구의 개방적이고 자유로운 성문화에 대한 외형적 현상을 부분적으로 답습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지만, 사실 우리가 그럴 것이라고 짐작하는 건강하지 못한 성문화는 피상적이고 외형적일 뿐이며 실제 주류는 아직도 건전한 성관계와 남녀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을 재평가해야만 한다.

이런 맥락에서, 보여지는 성적 표현이나 현상만 보고 문란한 성행위와 성의 상품화에 몰두해있으리라고 속단하는 것 역시 위험한 일이다. 특히 세계적으로 에이즈 예방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절제와 조절'이라는 대안이 대두되고 있다는 것을 주목해야 할 것이다.